

고전에서 길을 찾다 이경원

에디터 (이하 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길을 고전교육에서 찾으셨 습니다. 기독교 고전교육의 명가, 서울국제기독교 학교(SICA) 이경원 원장님, 처음 여쭙는 것 같습니다. 신앙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경원 원장 (이하 이)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집 앞에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 바람에 좋은 교회에서 자라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이 고(故) 옥한흠 목사님 사택 바로 앞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건 초등학교 졸업하는 겨울 수련회 때였어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잘 받았어요. 고등학교 주일학교 교사 중엔 방선기 목사님도 계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분들의 영향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쉼퍼, 존 스토트의 책까지 두루 접했지요. 매주 듣는 좋은 말씀에 성경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를 세 번은 갔던 거 같아요. 그렇게 10년 정도 훈련을 받으니, 대학생 시절에는 이미 세계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에 **세계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더불어 <월드뷰> 애독자라고도요. 아는 것과 세계관이 발현되는 것은 다르잖아요. 삶의 어느 순간이 계기가 되셨나요?**

이 **아무래도 계기가 됐던 건 아이들을 키우면서였어요. 나는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12년간 한양대에서 음악을 강의했는데, 그만두고 홈스쿨을 시작했어요. 거의 1년간 남편과 같이 각종 자료를 뒤졌습니다. 현재 SICA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은 대개그 시절에 찾은 교재들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한 거죠.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일반 심리학, 교육학 책을 많이 봤습니다. 교대서 공부하던 교회 친구와 같이 스키너와 매슬로우를 공부 했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키우다 보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이 제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 폭 빠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한대로

BE+Live+,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기, 그렇게 살아가려 부단히 애쓰는 오랜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키웠죠. 당시엔 육아서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 보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다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뀔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 좌충우돌도 했죠. 아이들 입장에서 어머니가 왜 갑자기 신앙을 강요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때 느낀 것 중 하나가 아이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에서, 혹은 대학 진학 등 인생의 큰 기로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있잖아요. 어릴 때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구나 싶어 세계관에 더 깊은 관심이 생겼고, 이를 교육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에 특별히 고전교육을 강조하십니다. 왜 고전교육인가요? 고전교육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 유학 중이든 한국에서 공부할 때든,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점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약하니까 문제의식 위에 뭔가를 쌓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쌓더라도 이내 또 다른 한계에 봉착하게 됐고요. 기초가 없으면 문제를 풀어낼 사고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의식을 너무 늦게 깨달아 기초를 너무 늦은 나이에 배운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걸 대학교에서도 제

대로 못 배웠으니까요. 물론 시험에서 점수는 잘 나왔겠지만,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방향성이 문제였어요.

제 기초가 약하다는 것을 음악을 배울 때도, 훗날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을 고전에서 다 설명하더라고요. 고전교육은 모든 공부의 주춧돌로 그 영향은 이곳저곳에 다 연결이 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더 고민하게 되더군요. 게다가 교육내용이 시대마다 바뀌는데, 왜 교육은 매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를 중심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적인 사항들은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에 대해 먼저 가르쳐야지, 기술적인 교육이 주(主)가 되어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저희 고문 교수님 중 성서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성경에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나?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 시스템으로 보면 죄인들과 먹고 창녀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신성모독적인 행위였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들과 격리시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바로 교육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트리비움(Trivium)은 고전주의의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인간이 만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끊임 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전교육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입교출신(入古出新)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전으로 돌아가야 거기서 비로소 새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와 책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전교육의 핵심은 성경의 원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을 아는, 적어도 크리스천들이 이곳에 올 수 있겠네요.

이 원칙적으로 부모가 모두 크리스천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반 미션스쿨들은 전통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받기도 했고 그것이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지금은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계관이 변화된,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본인의 분야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해요. 저희의 교육방법에 100% 동의해주셔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데, 두 분 중 한 분만 동의하는 경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교회나 기독교적 영역에서만 마음을 쏟고 삶은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두렵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존재라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예 교과목 편성이나 커리큘럼에서 고전교육의 독특성이나 다른 교육과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이 일단 모든 과목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역사 기술에 할애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설명합니다. 교과과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회, 지리, 미술, 음악, 문학 등을 역사와 함께 설명하죠. 역사를 주축으로 잡아놓

고 그 시대에 맞는 내용을 넣어 커리큘럼을 구성해요. 영어의 경우 문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되도록 문학으로 접할 수 있게 해요. 국어는 완전히 문학으로만 가르치고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영역이 정해진 과목들은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에 기초를 둔 교과서로 가르치죠. 수학은 창조론에 기초를 둔 교과서가 나오진 않지만, 수학적 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설명합니다. 우주가 단순히 카오스가 아니라 굉장히 질서 정연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설명하죠. 우리는 나무가 그냥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나뭇잎의 90%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창조질서의 아름다움과 기능적 탁월성을 하나씩 배우면 수학은 단순히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관점이 수업시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는 게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들도 해외에서 수학하게끔 하고요, 언제든지 자신의 영역을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책만 읽는다고 관점이 생기지는 않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성경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잘 교육하려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충분히'가 아이들로 하여금 지성을 사랑하게 해요. 본질을 알게 됐는데 아이들이 기쁘지 않겠어요?

예 이런 교육과정이 원장님께서 음악을 전공하신 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이 제가 음악 공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 지금은 음악의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이지만, 음악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음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발견

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묻게 되고,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과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 분야에 10개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한 개밖에 못해요. 많아도 두 개예요. 그런데 한 개밖에 전공하지 않은 제가, 수학과 물리를 감히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지만 음악적 상상이 수학·과학적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가 '창조질서'로 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원장님께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꼭 지키려 노력하는 하나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새벽시간에 기도는 지키려 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때에도 그 시간에 가장 많이 기도해요. 급한 일, 위험한 사건, 도저히 혼자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있을 때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리죠. 인간적인 좋은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는데도 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 시간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못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음악을 했다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학에서 나온 상태라 음악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독교를 변증한 거였더라고요. 음악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실재인지 가르칠 때도 나름대로 변증하려 했고, 그것이 제가 이 일에 뛰어들어든 이유였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골짜기를 메우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도 제가 능력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고전교육, 유초중고등교육기관
서울국제기독교학교(SICA)
홈페이지 www.sicakorea.org | 입학상담 02-577-7710